



12면

"김계서 예문화전사란 건립 위해 써주세요"

전주매일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음 9월 2일) 제287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총체적 부실

4억3000만원 규모 은파호수 수중미디어 매물비용 전락

70억 가량 홀로그램콘텐츠 군산시민 혜택 거의 없어

조동용 도의원, 도정질의회 도지사에게 대책 마련 촉구



물단지로 전락했다. 이외에도 하도급을 줄 경우 발주기관인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두 개 하도급 업체가 엉터리 계약으로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산시 지역업체 참여율이 3.9% 밖에 되지 않고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개관 이후,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돼 있어 군산시민을 두 번 울리는 애

더욱 심각한 것은 KT와 함께 공동수급자로 참여한 도내 A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증빙을 선급금 정산서에 담아 제출했으나 이중 두 건에 4억5,000만원의 이체확인서 증빙이 허위로 조작된 서류라는 사실이 밝혀져 앞으로 더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급금 정산서와 최종 정산서를 비교검토한 결과, 당초 하도급액을 초과한 이체사실이 드러나서 진흥원에 사실관계 확인요청을 한 결과, 하도급업체도 해당 선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본 대조필이 찍혀 있는 이체확인서 발급금 용기관에 문의한 결과도 발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동용 의원은 "사업 발주기관인 진흥원은 업체선정부터 사업 관리책임이 있는데, 진행되는 사업마다 부실논란을 야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진흥원의 대대적인 수습이 필요하고, 논란의 업체들에 대해서도 감사나 수사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흥원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장문의 익명 제보를 접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진흥원의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도지사가 집도의로 직접 나서서 대대적인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이 6일 열린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총체적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도지사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지난 2018년 9월 완료된 군산은파호수 수중미디어콘텐츠사업(이하 은파호수 사업)이 한 번도 장비를 가동해보지도 못하고, 3년 넘게 방치된 것도 모자라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된 사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진흥원과 군산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4억 3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매물비용으로 전락하는 일은 불가피하게 됐다.

약 70억 원 규모(69억2,300만(국비 34억 3,000, 지방비 35억))의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전(이하 체험전)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에 따르면 '체험전 사업'은 고용 및 산업위aggi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됐으나, 사업취지와 달리 군



만개한 국화 배경으로 사진 '촬'각

원만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6일 일삼치즈페스티벌에 국화가 만개해 있다. 두 남녀가 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전주·군산·완주에 조성 중 스마트시티 '주먹구구식'

김윤덕 의원, 국토부 국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이 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 완주 등지에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와 LH공사가 함께 추진해온 주요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지구 전국 59곳의 조성사업을 감사한 결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겨우 2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도내의 전주, 군산, 완주 신도시 개발사업 등은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지적된 것이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장관에게 "관계 법 규정을 잘 몰라 기본적인 실시계획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엉터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스마트 시티' 라며 4년간 나 몰라라 방치해온 사례가 지적됐다"고 주장하면서 "문제의 사업지구들은 모두 '스마트 도시'란 이름표를 달고 준공 처리, 또는 현재 시스템 구축이 한창인데, 이런 곳이 '스마트 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지능형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됐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해온 신도시 개발사업은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완주군은 7억여원을 들여 밤치나 재난 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폐쇄회로 영상물 제공하도록 했으나 지능형시스템 조차 구축되지 않아 강릉에 불과했는데도 준공처리 됐으며, 군산의 경우 돌발상황감지 서비스 구축사업도 엉망"



이러면서 국토부의 근무 태만과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 문제는 LH공사가 사업을 진행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전국

스마트 도시 개발 사업지구 59곳 모두에서 이같은 부실이 똑같이 확인됐다. 이 정도면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본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되돌려 놓거나 제대로된 사업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국토부를 대상으로 최근 다룬 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 매매대금이 국토부의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증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진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상 거래의 기준을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국토부 내부 이상거래 기준에 윤석열 후보 부친의 부동산 거래 건은 해당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후보 부친 부동산 거래를 둘러싸고, 다문계약서 등의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부동산 거래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깊어가는 전주의 가을, 한복 물결로

시, 11~17일 전통문화전당 등서 '한복문화주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전통 한복을 보고 만지고 소장할 수 있는 2021 한복문화주간이 가을 주간 행사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11일부터 17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한옥마을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오목대 전통정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한복문화주간은 시가 지

난 6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가 주최한 '2021 한복문화주간' 사업에 2년 연속 국비를 확보해 열게 됐다. 전주한복 '결'을 주제로 한 한복문화주간은 한복의 아름다운 선을 나타내고 한복과 시민 및 관광객을 하

로 연결하디의 의미를 갖는 단어 '결'을 중심으로, '숨결', '손결', '물결' 3가지 테마로 나누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복패션쇼 ▲전통 비단수의 전시 ▲한복 장터 및 한문체험 ▲한복사진공모전 ▲한복

포토존 ▲한복입고 증명사진 찍기 캠페인 등 남녀노소·국적 구별 없이 전주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한복문화주간 동안 한복을 더 입고 더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전주를 품은 한복' 주제의 사진공모전으로 문을 연다. 공모전에는 8일까지 전주를 배경으로 한 한복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사진을 찍은 사람이면 누구나 전주한복결 인스타그램 계정과 이메일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주한복 '결'의 특징은

주요 프로그램이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오목대 전통정원의 총 3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는 점이다. 먼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한복 문화주간 패션쇼가 열리고 우리나라 전통 비단으로 만든 수의가 전시된다. 오목대 전통정원에서는 한복 장터가 열리고, 마루달 야외마당에서는 한복포토존이 설치돼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여행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Best selected
Best
2021 한복문화주간
2021. 10. 13. - 14.
2021 한복문화주간
#입고찍고
한복이 더 무궁할 것임이
확하다. 한복문화주간을
한복문화주간을
2021 in Jeonju

국민연금과 전라북도 우리 함께 나아가요

- 일자리 걱정까지 씻어내는 번개 세차
- 커피처럼 향긋한 기부 NPS 36.5
- 신재생에너지가 마을연금으로 마을 자치 연금
- 소상공인의 새로운 활력 연금이 장터
- 입사자들의 생생한 JOB 토크콘서트 온라인 생생토크
- 취업 기회를 열어주는 오픈 캠퍼스
- 현장 실무체험 기회제공 직무 현장 체험 학습

전북의 생활에 꼭 맞게, 전북의 행복이 팍 차게 국민연금이 전라북도 지역 상생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결됩니다 행복한 지금
NPS 국민연금